

종교·미신·초현실... '오컬트物' 몰려온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초자연적 현상이나 종교·미신 등을 다룬 오컬트(occult)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소재가 대중문화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각광받는 모양새다. 13일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언

영화 '사바하' 시사회서 공개...신의 존재·인간의 영생 다뤄 OCN, '빙의' 내달 초 선보여...사악한 영혼 쫓는 내용 담아

론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 '사바하' (감독 장재현·사진). 이 영화는 가톨릭 사제들의 구마 의식을 다룬 '검은 사제들' (2015년)로 544만 관객을 모은 장재현 감독의 신작이다. 이번에는 신종 종교의 비밀을 캐는 목사를 내세워 신의 존재와 인간의 영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또한 2016년 개봉된 영화 '곡성'이 손바닥의 성흔을 통해 관객들에게 '신과 악을 구분해보라'고 계일을 제안했던 것처럼, '사바하'는 손가락이 6개 있는 존재를 배제한 관객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 장 감독은 "오컬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 그보다는 종교적 색채가 진하다"며 "사회가 과학적·합리적이 될수록 종교나 초자연

적인 현상이 쇠퇴하기 보다는 오히려 응축된 (메시지를 전하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극장 뿐만 아니라 안방에서도 이런 작품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OCN 드라마 '구해줘'는 사이버 종교 집단에 맞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고, 지난해 방송된 OCN '순더 게스트'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 기이한 힘에 의해 벌어지는 범죄에 맞선 영매와 사제, 형사를 내세워 호평받았다. 이 같은 소재로 재미를 특별히 본 OCN은 3월 초 또 다른 드라마 '빙의'를 선보인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형사와 영매가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악한 영혼을 쫓는 내용을 담는다.

신종 종교와 미신, 초자연적인 소재를 다룬 오컬트물은 통상 혼탁한 시대상과 그 안에서 쉽게 현혹되는 대중을 내세운다. 인간 본연에 대한 궁금증과 내약한 인간이 기대는 영적인 존재의 진위 여부를 캐며 궁금증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주인공인 인간이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시사점을 던지는 식이다. 장 감독은 "동물은 기도로 안하고 신을 믿지 않는다. 믿고 의심하고 죄를 뒤우치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감사하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며 "요즘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이런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농도도 짙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新예능 토크쇼 '6자회담', 정규 편성 될까



맷으로 방영되고 있는 만큼 지금 안방극장은 '관찰형 예능'의 독점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엇비슷한 관찰예능의 발달 속에서 지난 5일 첫 방송된 KBS '6자회담'은 이러한 예능 강박에서 벗어난 거의 유일한 신규 예능프로그램. 종편을 넘은 '관찰' 과잉 공급으로 시청자들이 피로감과 기시감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때회 참신한 토크쇼로 편안한 웃음을 전달,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경규는 1회 방송에서 "모두 관찰만 하고 있는데 이제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출연 이유를 밝히기도

고 보는 예능인들의 조합은 여전히 좋았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여러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친 6인은 방송 내내 빌 틈 없이 꽉 찬 토크를 이어갔고, 연에게 소문난 호롱 대가, 이경규 박명수 장동민은 그간 예능에서 보여준 단순한 호롱에서 벗어나 조금은 논리적인 말싸움으로 볼거리까지 제공했다. 각자 개성이 뚜렷한 만큼 해당 조합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배일을 벗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 큰 걱정은 없어도 될 듯하다. 우선 만형 이경규는 후배들과 어울려 토론의 흐름을 제대로 알아나갔다. 데뷔 40년차 예능대부다운 노련함을 보였고, 김용만은 매끄러운 진행 실력으로 개성 강한 멤버들을 한데 아우르는 역할을 했다. 기발한 발상과 여전히 살아있는 입담을 과시한 박명수 그리고 장동민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주눅 들지 않고 대처하는 센스를 뽐냈으며 김희철은 회사빨(?)로 6자회담의 멤버가 된 것 같다는 스스로의 평가와 달리 말은 임무를 특별히 해냈다. 호롱 캐릭터의 이경규와 버려 아이픈의 박명수 사이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평. 마지막으로 이들 중 프로그램의 유일한 흥일적인 장도연은 특유의 유쾌함으로 다른 멤버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토크내공을 선보이고 있다. 예상외로 잘 들어맞는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듯하다.

◆ 자타공인 예능대세! 이경규-김용만-박명수-장동민-김희철-장도연 6인 막강 조합!

관찰예능과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대세인 요즘, 이 둘을 깨고 KBS에서 야심차게 新예능 토크쇼를 선보였다. 이경규-김용만-박명수-장동민-김희철-장도연 방송가를 주름잡는 정상급 예능인의 만남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은 '6자회담'이 바로 그 주인공.

◆ 관찰예능의 홍수 속, 오랜만에 접하는 반가운 토크쇼!

매일 하나이상의 예능프로그램이 가족·관찰 예능과 같은 비슷한 포

출연자들의 일상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장르인 관찰예능만이 빛을 내고 있는 예능판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이런 '리얼 토크쇼'가 반갑다. 방송 전부터 내로라하는 예능인 만남으로 기대를 높였던 '6자회담' 예능 대부 이경규를 비롯 김용만, 박명수 그리고 떠오르는 대세 예능인 장동민, 김희철 장도연까지! 믿

'골목식당',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유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굳건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지켰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평균 시청률 1부 8.4%, 2부 9.2%(이하 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는 물론 주요 광고관계자들의 중요 지표인 '2019 타깃 시청률'에서도 4.2%(2부 기준)로 압도적인 수치를 유지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9.9%까지 치솟았다. 이날 방송은 서울 회기동 '벽화 골목' 네 번째 편으로 꾸며져 각 식당들의 본격적인 솔루션이 공개됐다. 고깃집은 갈비탕부터 냉동삼겹살까지 전반적인 메뉴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MC 조보이는 직접 고기를 굽고 음식을 맛보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갈비탕에서 대해서는 "골판왕"이라고 놀라워했다. 닭요리집은 닭 비린내를 잡아낸 'NEW 닭볶음탕'으로 눈길을 끌었다. 아들 사장님은 1대 사장님들인 부모님에게 직접 닭볶음탕을 대접

했고 어머니는 "내가 끓인 것보다 맛있다"고 호めた했다. 백종원은 "다만, 후추계열의 양념이 좀 세니 그 부분만 잡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은 '비리부어'를 통해 가수 크러쉬가 닭요리집을 전격 방문했다. 크러쉬는 '백종원의 골목식당' 애청자이자, '닭볶음탕 마니아'라는 크러쉬는 "진짜 맛있다. 국물이 미쳤다"며 닭이야 6년 만에 낫술을 시도해 웃음을 자아냈다. 피자집은 첫 방송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 덕분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피자를 중심으로 메뉴를 정리했고, 백종원의 조언대로 집중력을 유지하고 했지만 밀려드는 손님들의 러시는 사장님을 흔들리게 했다. 실제 장사를 겪어본 사장님은 "피자만 하겠다"고 결심했고, 이후 백종원과 함께 피자연구에 돌입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피자 토핑으로 '반반피자'를 완성시켰고, 직접 맛보며 'NEW 메뉴' 출격 준비에 돌입했다. 흥평을 받았던 컵밥집은 백종원에게 다시 한 번 평가를 받았다. 노량진 답사를 통해 토핑과 컵사이즈 등 전반적인 부분들을 개선했다는 컵밥집은 제육삼겹, 치즈불닭, 참치마요를 잇달아 내놓았다. 백종원은 "지난번보다 맛있다"면서도 무언가 아쉽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맛의 핵심을 살릴 수 있는 백종원표 솔루션을 예고해 흥미를 자아냈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9.9%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한편 오는 20일 방송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는 '얼굴천재' 아스트로 치은우의 출격해 남다른 '피자 막방'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음력 1월 11일)

<p>▶쥐띠 겸손한 자세로 자기 일에 몰두하라. 시작은 좋았으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격. 상대가 범, 닭, 돼지라면 믿고 따르라. 둘이서 화합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 있을 듯. 2, 9, 12월생은 마음고생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것.</p>	<p>▶용띠 대인관계와 이성간의 목욕이 지나치게 크다. 직업에 불만이 많을 듯. 4, 7, 9월생은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많은 성과 거둔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진실된 저세마니 명예 회복할 수 있다. 금전 욕심은 금물.</p>	<p>▶원숭이띠 그, 바, 자, 흥 성씨는 더욱 번창할 것. 힘든 일도 도전해서 정상에 설 수 있는 기백이 있다. 사회생활 원만히 하려면 신용도가 높아야고 용기 또한 필요하다. 북, 동쪽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다면 대성할 수 있다.</p>
<p>▶사슴띠 현명한 처세가 요구된다. 제아무리 눈치가 빠르다고 하지만 마음이 두 곳에 있으니 신경 쓰이겠다. 3, 9, 12월생은 자신감을 갖고 지낼 것. 바, 자, 흥 성씨는 애정문제로 갈등 겪을 수 있다. 2, 4, 6월생은 감정색을 멀리함이 좋을 듯.</p>	<p>▶황소띠 한 몸으로 두 길을 가려하니 힘겹겠다. 현재 풀리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미래를 고려해 근면하는 것이 최고. 1, 4, 6, 7월생에게 도움을 주면 사업과 직장이 길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약속한 말은 책임질 때다.</p>	<p>▶말띠 담당하다고 생각대로 처신하다가 주변 사람이 다 떠나는 격.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 것. 2, 4, 7월생이 부담도 되지만 도움 크다. 깊은 속마음을 알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성공 가능. 바, 사, 흥 성씨를 조심하라.</p>
<p>▶호랑이띠 부부 사이는 평온을 이루지만 사업적 뜻이 맞지 않아 갈등 심할 듯. 바, 바, 흥 성씨는 경제권을 여자가 갖고 생활하면 지출 없고 사업적으로 운택하겠다. 1, 2, 7, 8월생은 부자, 형제간에 금전거래는 심사숙고해라. 뜻하지 않은 일 일어난다.</p>	<p>▶말띠 무엇을 하든 위사람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 동서남북으로 분주히 움직여 주머니에 넣기가 바빠. 4, 8, 11월생은 지출도 많고 일마다 꼬이는 격.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1, 3, 8월생은 푸른색이 길조.</p>	<p>▶개띠 성실함을 보여 인정받도록 하라. 놓고 있는 것도 한도 있다. 3, 7, 10, 12월생은 건강을 빨리 찾아 재출발에 힘쓸 것. 바, 흥 성씨는 각별히 언행 조심. 화난다고 할 말 다하다 큰코 다친다. 그, 사, 자, 흥 성씨는 힘을 내라.</p>
<p>▶토끼띠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침착하게 처신하라. 1, 5, 9월생은 줄 것은 빨리 정리할 것. 그, 바, 흥 성씨는 건강 주의. 언행도 조심하라. 오랫동안 쌓아온 친분이 무너질 수 있다. 녹색이 정감있는 색.</p>	<p>▶양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감언이설로 고생하지 말고 제 위치로 돌아가라. 그, 바, 흥 성씨는 가족이 말리는 사업이나 직업을 갖지 말 것.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달래라. 남의 일에 신경 쓰다 7, 11, 12월생은 눈물 흘린다.</p>	<p>▶돼지띠 내태한 마음이 실수를 초래할 때가 있다. 꾸준한 전진만이 성공의 지름길. 사, 흥 성씨는 현재 위치에서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다. 3, 5, 10월생 마음에서 떠난 사람을 생각하지말라. 자신의 길 개척할 것. 애정으로도 고독감에 지칠 때.</p>